

경남 지역 연극공연제의 구조적 한계와 정책적 대안 연구

거창국제연극제·밀양공연예술축제·통영연극예술축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ructural Limita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of Regional Theater Festivals in Gyeongsangnam-do

: Focusing on the G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the Miryang Performing Arts Festival, and the Tongyeong Theatre Arts Festival

김남석^{••}

국문요약 이 연구는 경상남도의 주요 지역 연극공연제인 거창국제연극제, 밀양공연예술축제, 통영연극예술축제를 대상으로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장한다. 세 연극공연제는 경남 지역의 중요한 문화자산이지만, 현재는 초기의 성과와 명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예술적 비전의 약화, 창작 기반의 저하, 축제 간 협력 부재, 단기 행사 중심의 운영이라는 공통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거창국제연극제는 국제성과 야외 연극제의 전통을, 밀양공연예술축제는 공연 인프라와 과거 연극촌의 상징성을, 통영연극예술축제는 민간 주도의 창작성과 실험성을 지니고 있으나, 이들 자산이 경남 전체의 공연예술 생태계로 충분히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남 연극공연제의 활성화는 개별 축제의 단순한 유지나 통합이 아니라, 각 축제의 고유성을 보존하면서 공동 초청, 공동 홍보, 전문 인력 교류, 순환 공연, 창작 워크숍, 평가 자료 공유 등 협력 가능한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경남 연극공연제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문화정책의 보조 수단을 넘어, 지역의 문화적 활력과 예술적 자생력을 함께 시험하는 중요한 장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핵심어 경남 연극공연제, 거창국제연극제, 밀양공연예술축제, 통영연극예술축제, 지역 문화정책

- 차례**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향과 정책의 쟁점
 3. 지역 자생 연극공연제 비교를 통한 정책 시사점 도출
 4. 경남 지역 연극공연축제의 개선 방향
 5. 결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연구의 배경

이 연구는 경상남도 각 지역에 흩어져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공연예술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개별적인 접근을 심화하기 위해 고안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경상남도에 주목할 만한 공연예술제가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활성화 방안이 아직은 대단히 미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 중 첫 번째 대상은 거창국제연극제이다. 1989년에 시작한 ‘시월연극제’를 기반으로 성립한 이 국제연극제는¹ 2025년으로 제35회 대회를 개최한 바 있

• 이 연구는 2026년 2~5월에 경남도의회 의뢰를 받아 본인이 연구책임자로 시행한 정책 연구(「경남 공연예술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논문으로 발표하는 연구임을 밝혀둔다.

•• 국립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이종일 편저, 『거창국제연극제30년사』, 연극과인간, 2019, 270~273쪽;

다. 국제연극제의 면모를 갖춘 시기는 1995년으로 제7회 대회 때부터였다.² 한국의 국제연극제 가운데 초창기 연극제에 해당하며, 이후 대외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2014년부터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그 성세를 멈추어야 했던 경우이기도 하다.³ 야외무대를 중심으로 하여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제로 명성이 높지만,⁴ 현실적으로 그 운영 전반에 대해 수정·제고해야 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경우이다.⁵ 하지만 전통과 명망을 갖춘 연극제이고, 경남의 국제연극제 가운데 선구적인 축제이므로, 이 연구에서 중요한 참조 사항이자 교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두 번째 대상은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이다. 이 축제는 2001년(7월 28~8월 12일) 최초 개최되었는데,⁶ 개막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역 축제의 새로운 전범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하지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를 주관하던 극단이 해체되고 운영권을 상실하면서,⁷ 기존 연극 시설인 밀양연극촌과 함께 위기가 찾아왔다. 후발 국제연극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명성과 내부적인 실익을 챙긴 경우였지만,⁸ 2018년 이후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강도 높게 요구되는 사례이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과거의 명성과 미래의 대안을 겨냥한 연극제로 거듭날 대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이다.⁹

세 번째 연구 대상은 통영연극예술축제이다. 두 축제와는 달리 현재에도 민간 주도 연극제의 형식을 잃지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 국제연극제의 외형을 따르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24년부터 국제연극제로서 면모를 갖추고자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두 공연연극제와 달리 실험

과 도전, 창작과 제작이라는 화두를 잃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교적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의 깊게 그 추이를 관찰해야 할 할 경상남도 연극계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 주도로 진행되는 두 연극공연제와 민간 주도 공연연극제 격 통영연극예술축제의 우호적인 만남과 상호 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극공연제는 경상남도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지만, 현재 각 연극공연제의 성과는 소기의 성과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고 초기의 성과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적지 않은 장애와 난관이 성공과 확대를 저해하는 상황이지만, ‘인구 감소’와 ‘문화 부재’라는 문제에 시달리는 경상남도로서는 이러한 요인을 제거하고, 문화의 성숙과 산업의 결합이라는 숙제를 달성해야 하는 상태이다.

이에 이 연구는 경상남도의 주요한 문화자산인 세 축제 — 여기서는 연극과 공연의 측면을 강조한 행사로서 ‘연극공연제’로 지칭한다 — 의 내실과 공과, 성과와 패착, 과거와 현재, 미래와 대안, 장단점과 공유점에 대해 논구하고, 그 협력 방안과 자생 방안을 폭넓고 심도 있게 강구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밀양, 거창, 통영에 산재되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세 지역 축제에 대해 심도 있게 접근하여 운영 방식과 예산 상황, 문화적 파급력과 산업적 생산력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비교를 통해 그 장단점을 먼저 살피고자 한다. 세 연극공연제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개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자생적으로 성숙·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개별 연극공연제의 활성화 방안은 주요한 연구 목적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

『부산일보』, 1989.11.14.

2 『디지털거창문화대전』, <https://geochang.grandculture.net/geochang>

3 『뉴시스』, 2016.5.12.

4 『동아일보』, 2015.7.30.

5 「거창군의회 본회의회의록」, 2003.4.24.

6 『부산일보』, 2001.7.19; 『동아일보』, 2001.7.24.

7 『부산일보』, 2018.3.20.

8 「거창군의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2011.10.12.

9 이경환·정진영(밀양문화관광재단)과의 인터뷰, 2026.4.28.

하여, 가급적 지역 연극공연(제)의 실상을 탐구하고, 관계자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협력적인 의미에서 미래 발전 방안을 논구하는 데에 일차적인 연구 목적을 둔다.

동시에 이 연구는 개별 연극공연제가 지금까지 자립적 성향으로 인해 상호 분리된 지역 예술축제로 남아 있었던 사실에 주목한다. 이 연구의 최초 발의 역시 지역별로 한계에 달한 연극공연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것에 있다고 할 때,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공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역 연극공연예술(축)제 담당자들이 한결 같은 목소리로 우려하는 사항인, 실정을 무시하는 통폐합이나 점령군식 축제 연계는 지양하고자 한다. 다만 예산과 인력, 시기와 효율성의 측면에서 지금까지 수행하지 못했던 공동 사업이나 교류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는 작업에는 연구의 역점을 할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공연예술축제는 주로 생산자로서의 극단이나 창작자로서의 작가(넓은 의미에서 연출가와 스탠프와 연기자 포함)를 중심으로 그 예산을 배분하고 정책을 운영해 왔다. 공연예술축제 혹은 연극공연제를 만들거나 운영하는 이들이 지역의 예산을 재촉하고 의견을 냄으로써, 문화의 불모지에 연극공연의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들이 자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점차 세상이 달라졌고, 창작자와 제작자의 맞은편에 존재하는 수용자, 즉 관객의 입장이 변모했다. 따라서 경상남도의 지원 정책이나 축제의 운영 정책 역시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그 달라지는 중심에 관객, 즉 연극공연의 수혜자이자 소비자로서의 관객이 존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창작자-제작자 중심의 현재 관행에서 수용자-소비자를 포함하는 정책과 지원, 운영과 예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축제의 자율성은 동시에 중복 효과를 불러오기도 했다. 자신의 고장만을 중시하고 이웃의 여건을 돌보지 않는 관행은, 자기 지역 축제만을 바라보는 근시

안적 정책을 양산하고 말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작품을 포기하는 관행을 들 수 있다. 지역 공연연극제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 축제만의 이익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시기적으로 연접한 연극공연제 간의 예산 분담 공동 초청의 길도 열릴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자신들의 연극공연 계획과 내부적인 시각으로 인해 이러한 협의점을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효율성을 기반으로 개별 축제가 도전할 수 없는 영역을 넘어서며, 축제 간의 상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산액과 행정력의 중복 효과는 비단 연극공연제의 운영 주체에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다. 하나의 축제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예산상으로 보조하는 업무는 일종의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다. 연극공연제 자체에 더욱 강력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행정력으로 낭비할 수 없지만, 행정력을 면밀하게 갖추지 않는다면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양날의 검과 같은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세 지역 연극제의 행정과 예산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도 초점을 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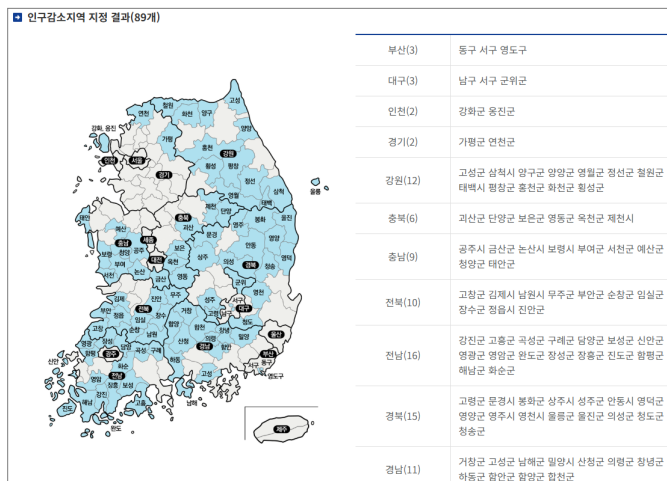
지역 축제로서 연극공연제의 활성화 방안은 이제 중요한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중 하나이며, 지역 관광업계의 활기를 되살리는 중요한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외국의 유명한 축제로서 애든버러 (국제)페스티벌 (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이나 아비뇽 페스티벌(Avignon Festival)은 비단 우연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재건과 경제 효과를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상남도 역시 인구 감소, 산업 저하, 지역 쇠퇴의 운명을 겪고 있다고 할 때, 연극공연제의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동시대의 운명을 극복할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연구의 방향과 정책의 쟁점

2.1. 경남 인구감소·지역소멸과 공연예술의

정책적 의미

경남 지역은 급격한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이며, 지방소멸의 위험이 큰 곳이다.¹⁰ 행안부는 한국에서 이러한 위험을 가진 지역을 공표했는데, 경남은 11개 시도가 여기에 포함된다.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 그 지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이며 유일하게 밀양시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행안부가 발표한 인구소멸 지도¹¹

이 연구에서 이러한 현 상황은 매우 중요한 변화 요인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행정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혹은 관련 인프라의 측면에서 또 다른 대응을 상정하는 작업은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이 인구소멸 지역이 비단 위기의 요인으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문화예술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인구 감소의 문제는 하나의 위기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문화예술이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고, 그

때마다 그 위기를 탈출하는 묘안이 사회 전반의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 일례로 ‘한류’를 들 수 있다.

최근, 한류의 부흥과 성세는 문화를 보는 눈을 변화시켰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 혹은 K-영상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은 분명하지 않았다. 할리우드나 ‘미드’(미국드라마)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전 세계적인 폭격이 일어나고 한국형 오리지널콘텐츠가 제작 유행하면서, 한국 영상콘텐츠에 대한 자신감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K-팝으로 대표되는 한국 음악의 성장과 확산도 이에 못지 않다. 적어도 대중음악계에서 한국 음악은 전 세계를 시장 권역으로 삼고 있으며, 과거 일방적인 음악 수입국에서의 지위에서 벗어난 지 오래이다. 이러한 문제는 K-푸드, K-뷰티, K-관광 등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과거와 달리 한국은 이제 일방적인 문화 수입국이거나 서양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으며, 오히려 주체적인 문화적 감식안과 선구성으로 대외적 입지를 폭넓게 확대하는 중이다.

이러한 주변 상황과 비교할 때, 연극을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은 아직 성장과 확대의 측면에서 주변부에 머무는 인상을 준다. 한국 연극이 해외에서 인기를 끈 사례가 구체적으로 발견되지 않으며,¹² 외국의 공연예술에 비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는 기록도 흔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한 측면에서 K-영상과 자주 비교되는 한국 연극의 위상은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러한 한국 연극의 위상은 지역 정책이나 국책 사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집중적인 투자와 육성을 강조하는 문화콘텐츠 사업에서도 연극(공연예술)은 예외적인 분야로 내몰리고 있다. 지원금의 액수나 규모, 수주

10 김종태, 「경상북도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고찰」,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35(1),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24, 135~143쪽.

11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sub/>.

12 최승연, 「〈어쩌면 해피엔딩〉에서 〈Maybe Happy Ending〉으로」, 『한국극예술연구』 85, 한국극예술학회, 2025, 167~212쪽.

기회나 조건 등에서 그다지 긍정적인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도 않다. 1/N의 문화 정책 분야 가운데 하나라는 인상도 좀처럼 떨쳐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하지만 연극을 위시한 공연예술은 지역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주요한 예술적 덕목이 될 수 있다. 공연예술은 전파나 영상을 통한 무한대적 확대를 거부하는 예술이다. 일정한 장소에 모인 일정 규모의 관객이 한정적인 기회 내에서 관람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영화처럼 무한 복제에 의한 대중화나 콘서트처럼 천문학적 인파의 재림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주변부의 예술이자 국지적 분야라는 인식도 들을 수 있지만, 동시에 지역의 정주자가 가장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이라는 인식도 숨길 수 없다. 그 과정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작품들은 다수의 공연 기회를 갖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복제 예술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예술로서의 특징은 경남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 인프라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연극은 지역 문화 산물이며(연극의 측면에서는 서울도 일종의 확대된 지역에 가깝다), 한정된 자원으로 한정된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경상남도만의 문화예술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지역의 토착 문화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부산 경남에서는 많은 연출가와 연극인들이 양성된 바 있다. 그들은 일정한 기회를 얻으면 서울 대학로나 중앙 방송국 혹은 충무로 영화계로 진입하여 큰 성과와 인기를 얻은 바 있다. 그만큼 지역의 인재가 공연예술 분야에서 남부럽지 않게 양산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 문화로서 연극공연과 공연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그러한 잠재력은 경남을 중심으로 만개할 수 있다. 떠나는 지역으로서의 경남이 아니라, 남아서 성장하는 경남의 연극공연계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문화적 자산의 확보와 확산은 결과적으로 지역의 문화적 수요와 인프라를 안정시키고 유출되는 인구의 이동을 저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경남을 관광지로, 혹은 주거지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방문과 정주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연극공연제는 그러한 선택과 결심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거창국제연극제에 참여한 많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넉넉한 삶의 여건에 경의를 표하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당장의 이주자나 거주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삶의 제반 조건을 아우르는 안정된 인프라 건설과 정주의 욕망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2.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의 기여 가능성

연극을 비롯한 공연예술 정책은 지역의 쇠퇴와 인구의 유출을 저지할 수 있는 문화적 방어막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을 매우 합당한 견해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방어막이 형성될 수 있는 구체적 조건을 살펴보자.¹³

제작자 측 즉 공연 주체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공연예술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외부 관광객이 유입되고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전반에 대한 수요자(관객)의 선호도가 향상되면,¹⁴ 자연스럽게 극장을 중심으로 문화 산업의 활성화된다. 작품을 쓰고 연출을 하고 연기를 하고 공연을 돕는 일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예측 가능한 일자

¹³ 외국에서도 지역(시골)은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나 예산통합으로 인하여 더이상 문화적 보편성에 대한 보장이 행해지지 않”는 공간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문화적 위험이 지역을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볼프강 슈나이더, 『탈식민화, 다양성과 분권화』, 『인문과학연구』 31, 인문과학연구소, 2020, 137~139쪽).

¹⁴ 지역 소멸과 문화예술교육정책과 그 실제 활동의 상관성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혜경·정옥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신·구도시 공생 방안 연구」, 『예술교육연구』 23(1), 한국예술교육학회, 2025, 1~18쪽; 장명재,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정체성 기반 문화예술 활동이 지닌 가치 탐구에 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65,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25, 381~412쪽).

리로 남기 때문에, 관련 직업의 공백으로 인해 지역을 떠나는 젊은 청년들 혹은 숙련된 전문가들의 이주가 줄어들는다. 실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 혹은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굳이 지역을 떠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극장 관련자 역시 공연예술의 지역 활성화에 의해 고무될 수 있다. 어떤 건물에 극장을 배치/보유하는 문제는 경제적 이익에 의해 좌우된다. 건물주 혹은 임대자의 입장에서 공용 건물에 극장이 있다면, 그 자체로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경제적 이익 보장되어야 하지만, 설령 큰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수준 제고를 위한 공익 사업이라는 명분은 생각보다 극장 설치의 주요한 이유가 된다. 극장을 유치하려는 건물주들은 문화 산업이 가져오는 정신적·정서적·무형적 가치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극장을 중심으로 한 연극공연이 활성화된다면, 건물 내에 극장 수가 늘어날 것이다. 극장은 그 자체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비록 공연예술 즉 연극공연이 부재하는 시점이라고 해도 운영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 서구의 국가 중에는 다양한 극장 문화를 즐기면서 예술적 향유를 지향하는 시민들을 다수 포함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화적 향유 능력은 보이지 않는 잠재적으로 문화 콘텐츠 전반에 걸친 상승 효과를 주도할 것이다.

극장의 활성화는 그 자체로 다양화를 불러올 수 있다. 공연예술은 그 자체로 다양한 하위 장르를 거느리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연극을 비롯하여 뮤지컬, 오페라, 마술 혹은 쇼, 보드빌, 전통극 등 그 세부 갈래는 매우 다양하다. 극장이 늘어나고 극장 운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다양한 하위 장르에 대한 관심과 인식 역시 늘어날 것이다. 아비뇽이나 칸 혹은 에든버러가 축제와 공연으로 어떠한 성가를 구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¹⁵

문화적 활성화로서 극장의 다변화가 가져오는 문화적 이득은 상당하다고 해야 한다.

수용자로서 관객 역시 이러한 공연예술의 묘미와 매력에 눈을 뜰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문화적 향유는 그 기회의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영화관이 많을 때 영화는 더욱 강력한 향유(감상) 능력을 갖출 수 있고, OTT가 번성할 때 OTT 드라마가 힘을 얻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공연예술의 확대는 그 수요자로서 관객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고, 해당 분야 전반에 걸친 문화적 소프트웨어가 성장 확대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활성화는 지역 활성화의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된다.

공연예술의 활성화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이주자를 촉진하고 관광객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둔다. 앞에서 사례로 든 것처럼 8월 에든버러는 발 딛을 틈이 없을 정도이다. 도시 전체가 극장으로 뒤덮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극장은 동이 나고 티켓은 매진된다. 관광객들의 유입은 도시 산업을 활성화하고 결과적으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 결국 공연예술은 지역(도시)을 활성화하고 그렇게 활성화된 도시는 공연예술을 통한 문화 산업적 활성화를 이룩한다. 이러한 선순환적 구조는 비단 공연예술을 문화적 감각만이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주요 이유가 된다.

문화 산업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돕는다. 극장을 짓고, 세트를 짓고, 관객을 만들고, 작품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은 물자와 용역 그리고 자금의 이동을 연동시켜 결과적으로는 건전한 순환이 이루어지는 도시적 생태를

로 다음을 들 수 있다(류정아, 「공연예술축제를 구성하는 '예술성'과 '축제성'의 특성 분석」, 『공연문화연구』 22, 한국공연문화학회, 2011, 253~283쪽; 김복래, 「축제가 문화관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 『유라시아연구』 9(2),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2, 219~237쪽; 정지은·이석규, 「글로벌컬처를 향한 지역축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관광학연구』 37(10), 한국관광학회, 2013, 97~115쪽; 서정미, 「에든버러 공연예술 축제의 구조와 기능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41,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19, 115~127쪽).

15 세계적 축제가 가진 성과와 해당 지역 지역성의 관계를 고찰한 국내 연구

견고하게 다듬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극과 공연 예술은 잠자던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화적 블루 오션일 수 있다. 지금까지 그 빛을 분명하게 발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 지역 자생 연극공연제 비교를 통한 정책 시사점 도출

3.1. 연극공연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3.1.1. 운영 주체의 변화

세 연극공연제는 민간이 주도해서 축제를 기획 운영한 바 있고, 그 규모가 확장되면서 관 주도 체제로 변모하였다. 거창국제연극제와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는 운영팀과 주도자의 법규 위반을 기화로, 그 운영권이 실질적으로 관(거창문화재단/밀양문화관광재단)으로 이전되었다. 그 과정에서 민간 주도 축제가 가진 장점이 사라졌고, 관 주도 축제가 자랑하는 성과 역시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다.¹⁶

통영연극예술축제 역시 민간 주도 축제인데, 아직은 관 주도 축제로 이전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상대적으로 축제 자율권이 존속하고 있어, 그 미래 향방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관 주도 성격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 예술적 비전과 창작 능력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3.1.2. 예술적 비전 상실

거창국제연극제와 밀양연극예술축제는 2000년대 한

국 연극공연 축제 역사에 한 획을 그으면서, 연극사에서 지역 연극공연축제의 중요성을 되살린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특히 2010년대 중반까지 예술적 완성도를 유지하면서도 대중의 시선을 수용하는 유연한 운영으로 상업적으로도 일정한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이러한 성과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대거 상실되었고, 현재(2026년 기준)로서는 과거 2000~2010년대의 성과를 복원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각 축제가 보유해야 할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지는 못하다. 프로그램 복원과 축제 진행이라는 당면 과제에 집중하는 형국이라 장기적 비전과 함께 연극공연제의 예술적 비전을 확립하는 데에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과거 역사와 현재 상황은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상업적 성공과 대외 파급력 혹은 경제 효과를 따지는 것은 단기적 시선에 불과하다. 보다 먼 장래를 살피면서, 이러한 상업성, 파급력, 경제성이 연동되어 확립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그토록 모델로 삼은 아비뇽 페스티벌과 에든버러 축제는 처음부터 경제성과 파급력을 고심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문화적·예술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저절로 산업적 효과가 생성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현 거창과 밀양의 연극공연제가 단기적인 산업 효과에 치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통영연극예술축제가 주요한 관찰 사례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3.1.3. 창작능력의 저하

거창국제연극제의 출범 과정에서 경상남도 지역 연극 단체와 극단 입체의 활동이 기반이 되었고,¹⁷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의 성공에는 연희단거리패의 작품 수급 능력과 완성도 있는 공연작이 그 기본적 바탕을 이루었

¹⁶ 민간 주도 공연예술축제와 관 주도 공연예술축제는 운영 면에서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인다(정지은, 「지역예술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관광연구』 31(7), 대한관광경영학회, 2016, 1~24쪽).

¹⁷ 이종일, 『극단입체 40년사: 공연흐름과 무대미학(1983~2022년)』, 연극과 인간, 2024.

다.¹⁸ 하지만 2018년 이후 밀양공연예술축제에서 이러한 작품 창작 혹은 이와 관련된 제작 능력은 대거 상실되었고, 운영팀 역시 이러한 창작 능력의 확대에 고심하는 상황이다.¹⁹

현재 상황에서 거창국제연극제는 불어나는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작 능력에 대한 프로그램은 형식적으로 변모했고,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의 과거 연희단거리패의 레퍼토리 역시 현재로서는 현 축제에 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창작 능력 신장과 보유 정책이, 지역 연극공연제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²⁰

하지만 현 지역 연극공연제의 침체를 극복하고 관-지자체가 요구하는 산업성 제고를 위해서는, 상시 공연 체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는 매우 요원해 보이는 이러한 상시 공연 체제는 축제 기간이 7~8월에 집중되고 나머지 관련 인프라(극장 시설)를 휴면해야 하는 현 운행 구조를 타파할 방안으로 손꼽힌다. 1년 상시 운영 체제를 단번에 실현하려고 하기보다는, 유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순환형 공연 체제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3.1.4. 상호 협력의 부재

거창국제연극제가 정점에 도달한 시기에 연희단거리패는 단골 초대 극단이었다.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가 인접해 있으면서도, 연희단거리패는 그해의 대표작 혹은 레퍼토리를 거창국제연극제에서 공연하였다. 전반적으로 반응이 긍정적이었고, 양자는 모두 이러한 시스템에 만족했다.

하지만 두 운영 주체 사이의 협정 체결이나 공동 작업에 대한 협의는 발견되지 않는다. 두 연극공연제가 동일하게 성장 과정에 위치해 있었고, 각자 발전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장 시기의 공연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연극공연제 운영 차원의 협력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 2026년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각 연극공연제는 ‘교류전’이라는 명목으로 타 지역 혹은 타단체의 작품을 공유하지만,²¹ 정책적·운영적 교류는 전면 배제하는 상황이다.²² 오히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이 자신들에게 도움보다는 손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은 연극계 전체를 둘러보아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결과이다. 운영 주체는 협력이나 합의보다는 초청이나 교류에 익숙한데, 이때의 초청이나 교류는 주로 작품 공연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경상남도 연극공연제는 상호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그다지 높게 책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 세 연극공연제는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축제 운영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자부심은 개성과 전통의 확립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심층적인 교류와 다층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나 사업 혹은 프로그램까지 개성과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희생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구심도 지우지 못하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변화된 연극공연제의 시스템에서는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공동 사업의 개최와 추진이 주목된다. 보다 확대된 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 개별적 연극공연제

18 김남석 외, 『연희단거리패의 공연사와 공연미학』, 도요, 2017, 13~344쪽.

19 이경환·정진영(밀양문화관광재단)과의 인터뷰, 2026.4.28, 밀양문화관광재단.

20 이러한 측면에서 통영연극예술축제는 차이를 보인다. 이 축제의 대표와 실무 운영자는 모두 통영연극예술축제가 창작 혹은 실험과 관련을 맺는다고 증언하고 있다(제상아(통영연극예술축제위원회 사무국장)와의 인터뷰, 2026.4.11, 통영 제3의 공간; 장창석(통영연극예술축제위원회 위원장)과의 인터뷰, 2026.4.11, 박수골 소극장).

21 가령 밀양공연예술축제에는 지역 바깥 축제 주체와의 교류전(예를 들면 고마루연극제), 경남 관련 공연 주체와의 교류전(예를 들면 경남연극협회), 그리고 밀양 자생 연극극단과의 교류전을 운영하고 있다(이경환·정진영(밀양문화관광재단)과의 인터뷰, 2026.4.28, 밀양문화관광재단).

22 거창국제연극제 예술감독의 증언에 따르면 지역연극제 운영 주체 간 협력은 요원한 상태이다(한갑수(거창국제연극제 예술감독)와의 인터뷰, 2026.3.13, 거창국제연극제 예술감독실).

〈표 1〉 밀양공연예술축제와 거창국제연극제 예산 정보

밀양문화관광 재단 ²³	예산 (단위: 원)	공연비(초청비+경연비)	실적	실적	공연비 (예산 비율)	예산 (단위: 원)	거창문화 재단 ²⁴
2020년	800,000,000	369,500,000 (46.18%)	6,200 여명	—	—	상표권 분쟁으로 개최 무산 ²⁵	2020년
2021년 (코로나19로 긴축)	395,321,800	245,700,000 (62.15%, 예외 사항)		—	—	코로나 19로 개최 취소	2021년
2022년 (제22회)	715,000,000	336,290,000 (47.03%)	9,000 여명	56개 단체 72회 공연 14,126명	598,000,000 (42.71%)	1,100,000,000 ²⁶ (도비 300,000,000+군비 800,000,000)	2022년 (제32회)
2023년 (제23회)	799,990,000	424,640,000 (53.08%)	56팀 87회 14,276명	51개 단체 75회 공연 23,278명	724,000,000 (51.71%)	1,400,000,000 (도비 500,000,000+군비 900,000,000)	2023년 (제33회)
2024년 (제24회)	799,237,070	450,500,000 (56.36%)	38팀 50회 17,000명	51개 단체 77회 공연(7개국) 20,258명	631,000,000 (45.07%)	1,400,000,000 (도비 500,000,000+군비 900,000,000)	2024년 (제34회)
2025년 (제25회)	900,000,000	527,900,000 (58.65%)	43팀 68회 16,000명	41단체 66회 22,879명	680,000,000 (48.57%)	1,400,000,000 (도비 500,000,000+군비 900,000,000)	2025년 (제35회)
평균	803,556,767.5 (직전 4개 대회)	434,832,500 (54.11%)			658,250,000 (49.67%)	1,325,000,000	평균

가 실현할 수 없는 사업에 도전할 수 있고, 장단점을 공유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행사 운영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거의 협력 부재를 현재적 시점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을 제기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3.2. 사업 효과의 검토와 개별 축제의 득실

3.2.1. 예산의 투입과 사업의 효과

밀양공연예술축제와 거창국제연극제는 전적으로 해당 시와 관할 문화재단에 의해 운영되는데, 그 예산은 대략 다음과 같다. 필요에 따라 2020년 예산부터 정리하

도록 하며, 두 연극공연제에 소요되는 예산만을 대상으로 한다.

〈표 1〉을 보면, 전반적으로 밀양공연예술축제가 공연비 비율이 조금씩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밀양공연예술축제의 공연비 비율은 각각 47.03%(2022년), 53.08%(2023년), 56.36%(2024년), 58.65%(2025년)였는데 반해, 이에 대응하는 거창국제연극제의 공연비 비율은 각각 42.71%, 51.71%(2023년), 45.07%(2024년), 48.57%(2025년)로, 대략 5~10% 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어, 밀양 측은 평균 54.11%, 거창 측은 49.67%를 기록하고 있다.

소요 예산 중 공연비 비율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평균
밀양공연예술축제	47.03%	53.08%	56.36%	58.65%	54.11%
거창국제연극제	42.71%	51.71%	45.07%	48.57%	49.67%

전반적으로 밀양공연예술축제가 공연비 비율이 높은데, 이러한 격차는 통상적으로는 의문을 자아낸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아무래도 단가가 높은 외국 작품의 공연

²³ 밀양문화관광재단(정진영 PD)이 제공한 “밀양공연예술축제 집행 내역”에 의거함.

²⁴ 『제32회 거창국제연극제 평가보고회 자료집』, 거창문화재단, 2022; 『제33회 거창국제연극제 평가보고회 자료집』, 거창문화재단, 2023; 『제34회 거창국제연극제 평가보고회 자료집』, 거창문화재단, 2024; 『제35회 거창국제연극제 평가보고회 자료집』, 거창문화재단, 2025.

²⁵ 『동아일보』, 2019.6.11.

²⁶ 『제32회 거창국제연극제 평가보고회 자료집』, 거창문화재단, 2022, 1쪽.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는 거창국제연극제의 공연비 비율이 높아야 할 것으로 기대될 수 밖에 없다.

다만 2020년 이후 확인되는 예산 증감과 지출 내역이 제한적이고 또 두 단체의 성격(프로그램 구성 방식과, 성과의 집계 방식)이 아무래도 상이하므로 이 표를 일괄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국제연극제의 공연비가 전반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다. 이러한 지표는 효율성 부분에서 나타나는 성과로 바꾸어 해석할 여지를 남긴다.

이러한 논점에 의거하면, 거창국제연극제가 외국 작품을 섭외하고 공연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에 대한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니까 거창국제연극제는 아무래도 작품료가 전반적으로 고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밀양공연예술축제는 외국 작품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시설 면에서 앞서 있다는 장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밀양공연예술축제가 수치 면에서는 작품 수급을 위한 비용을 더 많이 책정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과 별개로 밀양공연예술축제의 작품 선택과 대외 평가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안 역시 몇 가지 논점을 별도로 보아야 한다. 대중적인 작품을 주로 선택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술적 성취도를 상대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시민과 관객을 위한 공연 관련 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하려고 계획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공연예술축제는 레퍼토리화 프로그램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 자체 평가 결과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예술계와 전문 분야에서 평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2017년 이전의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의 구성과 명성 그리고 실질적 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외적 실적 부분에서 두 연극공연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질적 평가를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거창국제연극제는 작품당 예산을 높게 책정하여 성과를 산출하고자 했고, 밀양공연예술축제는 공연비 예산 비율을 높게 책정하여 성과를 산출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2025년의 공연 사례는 이러한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 해의 공연 건수는 양자가 모두 비슷했다. 밀양공연예술축제는 43팀 68회 공연을 시행했고, 거창국제연극제는 41단체 66회 공연을 시행하여, 거의 비슷한 공연 횟수와 참가 극단 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밀양 측은 527,900,000을 공연비로 투여하였고, 거창 측은 680,000,000을 공연비로 투여하였다. 공연 횟수가 같다고 가정하고, 작품당 공연비를 계상하면, 밀양 측은 7,763,235원(527,900,000원 / 68회), 거창 측은 10,303,030원(680,000,000원 / 66회)로 나타난다. 전체 예산에서 공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창 측이 낮지만, 1회 공연에 투여되는 공연비 예산은 250만 원가량 거창 측이 높다고 해야 한다. 거창 측은 공연 단가가 높은 작품을 초청하는 데에 주력했고, 밀양 측은 많은 극단을 초청하는 데에 주력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거창국제연극제는 질적 수준에 대한 제고를 우선시했고, 밀양공연예술제는 초청 극단의 이익을 제고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거창국제연극제는 단가가 높은 작품을 수용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고, 밀양공연예술제는 작품 수의 양적 확대를 꾀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다고 해야 한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질적 수준 제고에, 밀양공연예술제는 양적 수준 유지에 특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두드러진 문제는 공연비의 과다 지출일 것이다. 그렇다고 공연비 과다 지출을 억지로 줄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방안은

공연비를 통해서 보다 우수한 수준의 작품을 초청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선회이다. 이러한 방안은 아무래도 공모 시스템과 지금 현재의 초청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해야 한다.

3.2.2. 명소의 발견과 관광의 자원

거창국제연극제(시초로서 시월연극제)는 경남 지역 연극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립되었고, 1회 대회 이후 경남 거창(입체예술극장)에 고착되면서 점차 지역 공동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기대를 바탕으로 한 연극공연제로 변모하였다.²⁷ 거창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극 질서의 재편을 꿈꾸면서 전국 단위, 그리고 국외 단위로 확장된 사례이며,²⁸ 그 과정에서 거창이 지니는 자연적·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재정립한 경우이다.²⁹

이에 비해 후발 주자였던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와 통영연극예술축제는 지역적 토착성을 애초부터 강화하면서, 창작 중심 본거지와 공연예술 공유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겨냥하는 방식으로 창설되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논조는 두 연극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 기반 토착성의 궁극적인 결과와 실질적인 목표를 압축적으로 그리고 우회적으로 보여 준다.

일본 도야마현의 도가무라(利賀村)는 연극촌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꾀한 사례이다. 도가무라는 수도인 도쿄에서 서북쪽으로 약 250km 떨어져 있는 도야마시에서도 차로 두 시간 가까이 이동해야 하는 산간 오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주민이 400여 명뿐인 산간마을이지만, 12만 4,000㎡(약 3만 7500평)의 면적에 극장 6곳을 갖춘 연극촌이 있다. 이곳은 1976년에 연출가 스즈키 다다시(鈴木忠志, 1939~)가 도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편중된 문화에

술 환경에 의문을 품고, 그가 이끄는 와세다 소극장(현 극단 SCOT: Suzuki Company of Toga)이 이곳으로 거점을 옮기고 갓쇼즈쿠리(合掌造り)의 민가를 개조하여 연극 활동을 시작하며 조성됐다. 현재, 연극촌은 해마다 세계적 규모의 국제연극제가 열리고, 일본 안팎에서 수천 명의 관객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 또한, 축제 및 이벤트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연극배우들의 창작공간으로서 연극연습 및 교육시설로 운영 중이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역사와 함께, 관련 콘텐츠가 축적되어 현재는 세계 각국의 연극인들과 함께 많은 이들을 도가무라로 불러 모으고 있다.³⁰

위의 글에서 주목되는 바는 연극촌을 건설하려는 극단 관계자(창작 주체)의 의지가 우선하고, 그 이후에 그 창작 의지가 현실화된 공연(창작)으로 인해 주변 자연환경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사실이다. 공연 주체의 의지가 결여되거나 부재하면,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연극 관련 시설을 건설한 이후에도 동한 효과를 맹목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점은, 예술적 주체의 창작 의지가 한 장소를 명소로 극대화하고, 그렇게 명소가 된 장소만이 더 많은 관(람)객을 끌어모으면서 예술적 의지를 확대시킨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 장소를 점유하는 예술적 주체의 신념과 주관 그리고 그에 따른 예술적 성과와 문화적 주체성이다. 따라서 일반 관객이 먼저 보는 것은, 작품이 아니라 주체이고, 장소의 풍광이 아니라 장소의 의미이다.

그 자체로는 단순한 승경지 이상의 장소일 수 없었던 거창의 수승대 일대나 폐 초등학교에 불과했던 밀양연극촌(후에 밀양아리나)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던 풍경 너머 인간의 의지였다. 위에서 밝히고 있는 것

27 『경남일보』, 2024.11.4.

28 이종일과의 서면 인터뷰, 2026.5.12.

29 『동아일보』, 2013.7.10; 『거창군의회 본회의회의록』, 2012.5.29.

30 정수희·이병민, 「문화를 통한 창조농촌 활성화 모델 연구」, 『지역과문화』 7(1), 한국지역문화학회, 2020, 27~57쪽.

처럼, 일본 연출가 스즈키 다다시의 굳은 신념과 폭넓은 시야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소중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거창과 밀양에 건설해야 할 것은 화려한 무대나 최첨단 시설만은 아니다. 그 공간으로서의 장소에 특별한 창작혼을 가진 예술적 신념과 문화적 자긍심이 심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거창이나 밀양은 집단 제작 시스템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현재 그렇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그들은 초청, 대여, 소개, 나아가서 교류로서의 창작 집단만을 수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 이전에 지켜야 할 창작과 실험, 도전과 제작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도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통영연극예술축제에서는 어느 정도 보완되고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전반적으로 창작과 제작의 측면에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요약하면 밀양, 거창, 통영이 각각 연극공연제를 통해 관광 명소가 되고자 한다면, 해당 지역 내에서 생성·생산되는 콘텐츠의 우수성과 성공/인기 가능성을 우선 입증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단기간에 공연되는 전람회식 공연을 벗어나 창작 주체로서의 열의와 열정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제작과 실험, 도전과 창작의 과정을 보여 주는 주체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연극 시설은 일회용 공연 혹은 단기간 흥행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우려가 증가하면서, 명소화를 통한 관광 상품으로서 발전 가능성은 갈수록 제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지역의 주민과 일정한 관광객이 몰려드는 특수를 어느 정도까지는 창출할 수는 있지만, 제한적 공연장으로서 역할 이상을 담당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제약을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밀양아리나는 과거 밀양연극촌과 달리 공용 목적

의 이용은 활성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에 활용 가치는 저하된 상태이다. 관련 자료가 회귀하여 비교에 전제적으로 제한이 따르지만, 2002년 평일 이틀 관람객 수가 800여 명에 달하고³¹ — 단순 계산으로 하면 총 관객 수 5,000명 정도 — 2006년 직전 관람객 수가 30,000명에 육박했다가³² 2008년 밀양여름공연예술제의 관(람)객 수가 50,000명으로³³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2025년 밀양공연예술제의 관(람)객 수는 총 16,000명이었다.³⁴

이러한 변화는 스즈키 다다시의 ‘일본 도야마현의 도가무라(利賀村)’의 사례를 다시 상기시킨다. 상주 단체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면서,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전문가, 관광객, 관객, 취재진 등이 모여드는 현상은 밀양공연예술축제가 한 단계 진일보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단일 관광 명소가 되기 위하여, 즉 밀양아리나를 중심으로 일종의 제작 명소이자 연극 센터를 건설하려는 목적에 필요한 주요 사안 하나를 시사한다고 하겠다.

3.3. 여름이라는 최적의 시간과 관광이라는 관람의 요건

밀양, 거창, 통영의 연극공연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여름 7~8월에 자신들의 개최 시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여름’이 자기 연극공연제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시기의 변모 과정을 추적하면, 이러한 판단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여름이 아닌 시기에 자신들의 연극공연에 실시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거창국제연극제가 그러하고, 일시적이지만 밀양공연예술축제가 그러하다.³⁵ 하지만 그들은 7~8월로 개최

31 『조선일보』, 2002.7.19.

32 『조선일보』, 2006.7.26.

33 『조선일보』, 2008.6.10.

34 「제25회 밀양공연예술축제평가 결과보고서」, 밀양문화관광재단, 2025, 37쪽.

35 『동아일보』, 2018.10.9.

시기를 재조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일정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찾아보자. 과거 거창국제연극제만 7~8월 일정을 소화하던 시점에서는 독자적으로 해당 일정을 산정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심지어 거창국제연극제는 여름이 아닌 시기에 행사를 시행한 적도 있었다. 제1~2회 대회(이때는 시월연극제)는 10월에 개최되었고,³⁶ 제3~5회 대회(1991~1993년) 12월에 진행되었으며,³⁷ 시월연극제가 거창전국연극제가 변모하는 제6회 대회 때도 대회 시점은 12월(12~31일)이었다.³⁸ 다시 거창국제연극제로 변모하는 제7회 때도 12월 개최는 변함이 없었고, 이러한 패턴은 제8~9회 때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제10회 대회부터는 8월로 시간을 옮겼고, 휴가지에서 접촉하고 관람하는 연극 즉 관광(유희)과 공연(연극)을 결합한 콘셉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거창국제연극제는 7~8월 공연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국제연극제를 시행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여름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후발 주자로 뛰어든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역시 여름을 고집했다. 연희단거리패는 전략적으로 여름을 선택했으며, 제1회 대회 때부터 7월 28~8월 12일을 선정함으로써 기존 거창국제연극제와의 일정 중복을 회피하지 않았다. 제2~5회 대회는 대략 7월 16(17)일에 시작해서 31일에 끝나는 일정을 선택하면서 거창국제연극제와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제6회 대회부터 다시 7월 하순~8월 초순(대략 7월 20일 전후 개막, 8월 3~5일 폐막)을 고수하면서 거창국제연극제와 대략 5~10일 정도의 일정 겹침 현상을 보였다. 2018년 성추행 파문으로 인해 밀양공연예술축제가 위기에 처하고 2018년 밀양푸른연극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제 변환을 시도했지만,³⁹ 그 이듬해인 2019년에 다시 과거의 명칭과 시기로 돌아왔다.⁴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름 휴가의 성수기와 기존 이미지에서 비롯되었다. 휴가를 떠나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시기에 밀양공연예술축제는 이동하는 관객과의 흐름과 자신의 연극공연제의 흐름을 맞추는 선택이 가능했다고 보아야 한다.

기본적인 설립부터 여름을 겨냥했던 통영연극예술축제 역시 동일한 범주에서 판단된다. 통영연극예술축제가 실질적으로 대규모 연극제의 형식을 따르는 2020년대 이후 개최 시기는 7~8월로 거의 고정되었다. 대부분 7월 중순에 시작되었는데, 유독 제14회 대회인 2022년 통영연극예술축제만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로 조정된 바 있었다.⁴¹ 하지만 2023년에 치러진 제15회 대회에는 다시 7월로 회귀했고,⁴² 2024년에도(제16회 대회) 7월 12일~21일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시기로 이행했다.⁴³ 결과적으로 통영연극예술축제 역시 전통적으로 7월 중하순이라는 시기를 선택했다.

이러한 개최 시기의 고착화와 통일성은 기본적으로 여름이 공연에 적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이동하는 관객으로서의 관광객을 수용하기에 적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경상남도 일대는 휴가 시즌에 접어들고 이러한 휴가객을 관객으로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다는 주최 측의 계획이 담겨 있다. 이러한 바캉스(휴가)와 공연 관람(관극)을 연계한 연극공연제의 시초는 거창국제연극제였고, 차후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도 이러한 특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⁴⁴ 더운 여름 연극 공연 관람을 피서와 연결시키려는 의지는

36 『부산일보』, 1989.11.14.

37 이종일 편저, 앞의 책, 193쪽.

38 『디지털거창문화대전』, <https://geochang.grandculture.net/geochang>

39 『동아일보』, 2018.10.9.

40 『한국경제』, 2019.6.23.

41 『경남도민신문』, 2022.8.15.

42 『경남도민신문』, 2023.6.14.

43 『한려투데이』, 2024.6.17.

44 『부산일보』, 2016.7.20.

두 연극공연제 모두에서 발견된다.⁴⁵

비단 특수는 관광객에 대한 홍보와 그 수용의 측면에서만 발생하지 않았다. 여름 기간 공연에서는 연장된 낮 시간으로 인해 다수의 연극을 공연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생성된다.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의 경우에도 여름 낮시간을 활용하여 연극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었는데, 길어진 낮의 효과는 이러한 촘촘한 스케줄을 가능하게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열기가 줄어드는 밤의 공연은 관객들에게 더운 무더위를 잊고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대극장(성벽극장)과 숲속극장을 활용하여 야의 공연을 추진했다. 손숙의 <어머니>가 밤 10시에 개막했음에도 1,000여 명의 관객이 공연을 관람하고 열광적으로 호응했다는 기사는⁴⁶ 이러한 여름 시즌의 낮/밤이 축제에 적합한 시간이며 효율적인 시간이라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결국 지역적으로 외진 곳에 위치한 거창, 통영, 그리고 밀양은 휴가객이 이동하는 시점에서 연극 공연에 최적화된 시기를 찾고자 했고,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여름 시즌으로 통일된 셈이다. 특히 거창과 밀양은 거의 인접한 시기에 각각의 연극공연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의사와 특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기를 보다 정예화하여 그 이점을 최대화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조차 증가한다고 하겠다.

3.4. 개막 시기의 인접성과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이 세 연극공연제는 7월 중후반에 시작하여 8월 초반에 끝나는 시기적 연접성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연접성은 그 자체로 독이자 득이기도 하다.⁴⁷ 2024년에는 7월 12일에 통영연극예술축제가 개막했고, 24일에는 밀양공연예술축제, 26일에는 거창국제연극제가 개막했다.

세 연극공연제의 개막과 폐막은 7월 중하순~8월 초순의 경남도를 뜨겁게 달구지만, 동시에 서로 중복되고 겹쳐지는 일정으로 인해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분야도 생겨난다. 즉 개별적으로 개막하고 또 자체 일정을 소화한 다음 독립적으로 폐막하는 일정이 생겨났다. 과거에는 이러한 일정을 이용하여 밀양과 거창 연극공연제를 횡단하는 극단도 있을 정도였다.

두 연극공연제를 보면 제15회(2003년)에 가장 이상적인 조합을 이룬 바 있다.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는 7월 17~31일, 거창연극제는 7월 31일~8월 17일로 일정이 이어졌고, 결국 두 축제는 하루의 겹침만 허용하고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최장 기간 경남도에 연극공연제를 개최하도록 만드는 일정을 생성했다. 다만 이러한 일정은 조율된 일정은 아니었고, 우연히 겹친 일정에 가까웠다.

이러한 일정 겹침, 혹은 시기 중복은 그 자체로는 행동 불행도 아니다. 이러한 일정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 조율할 수 있다면, 그때는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 가령 관광객으로서의 관객을 유도하기 위해 전략적 일정을 설계한다면, 가급적 겹치지 않고 각 지역의 일정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계획이 득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반대로 작품 공급과 극단 일정을 우선한다면, 매우 인접해서 중간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일정이 더욱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과 효과를 고려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일정 조율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야 한다. 지금은 세 도시가 각자의 계획과 목표를 별도로 수립하고 있고,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더 심대한 논점은 상호 간섭을 배제하고 효율적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상호 신뢰가 적고 협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일정 문제를 오래전부터

⁴⁵ 『부산일보』, 2013.7.22.

⁴⁶ 『조선일보』, 2013.1.10.

⁴⁷ 『부산일보』, 2024.7.11.

조율하고 각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타진하면서 공동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면, 일정과 계획은 보다 합리적으로 조율될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더 큰 이유는 여름 관광객을 겨냥하고, 연극에 필요한 조건을 감안하여 세 도시의 연극공연제가 일정한 일정 내로 이미 회귀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개최 시기를 보다 원대하고 세부적인 목표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면, 비단 일정뿐만 아니라 긴밀한 해결 사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 시와 개별적 운영 주체가 이러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상남도도 이러한 축제의 전략적 배치와 합리적 운영을 앞당기고 그 효과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4. 경남 지역 연극공연축제의 개선 방향

4.1. 지역 연극공연축제 협의체 구성 이유와 효과

4.1.1. 연극공연축제의 운영자 선정과 권한 확대

세 지역 연극공연제가 처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책임 있는 축제 운영자 혹은 운영 책임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행정 책임자(시장, 군수, 문화재단 이사장)의 요구와 명령을 따르는 부하 직원이 아니라, 예술적 비전과 전문적 지식을 앞세운 독립된 운영자여야 한다. 하지만 관제 시스템에서 이러한 운영자는 부담스러운 존재이며, 결과적으로 배척되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기 쉬운 대상이다.

문화재단 체제하에서 상부 권한을 가진 상관을 두거나, 시장 혹은 이사장의 직속 명령 체계하에 종속된 존재는 예술감독의 독립적 지위를 누리는 인사로 볼 수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거창국제연극제나 밀양공연예술축

제는 철저하게 관리 조직에 종속된 위치의 책임자를 두고 있다. 독자적인 권한에 제한을 둘 수 있고 관리적인 차원에서 통제 가능한 위치에 있는 인사 조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성, 독자성, 예술성에 대한 목표나 정책 실효성을 제시하는 데에 제약이 따른다. 그렇다면 현안을 해결하려는 첫 번째 조치는 독립적인 권한과 자율적인 위치를 보장받는 예술감독(사업 책임자)의 선임이어야 한다. 이 간단한 논리는 전 세계 성공한 축제에서 이미 검증된 사안인데 한국에서는 유독 문제적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밀양의 경우나 거창의 경우, 책임자 혹은 운영 주체의 문제가 분명 존재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책임자 내지는 운영 주체의 선임과 검증에 역점을 두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처럼 관리 조직 내에서 해당 사업을 수동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관리자 선임이 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4.1.2. 자체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계 프로그램의 모색

현재 지역 연극공연제의 프로그램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제연극제를 표방한 경우에는 해외 초청작이 있고, 이를 보완하는 국내 초청작이 있다. 특히 국내 초청작의 경우에는 직전 해 상을 수여했거나, 명망과 인기를 지닌 극단에 해당하거나, 이전 연극공연에서 인기와 호응을 얻거나 한 경우가 주로 채택된다. 이미 국내 여러 지역에 대한 공연을 통해 그 레퍼토리를 소진한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그다음은 공모를 통한 자유 참가 단체 중 선별 과정이다. 이러한 절차는 매우 민주적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는 투명한 방식으로 이해된다. 문제는 고민 없이 반복되며 매너리즘에 빠져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는 점이다. 축제의 콘셉트와 어울리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요식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고, 상투적인 반복으로 진행될 경우 미학적 참신함을 구현하지 못한 우려가 증대되

며, 습관적으로 치러지면 해당 관문을 편법으로 넘어서는 사례를 양산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미학적 관점과 예술적 관점을 충족한 책임자의 안목이자 선택이어야 한다. 이러한 안목이자 판단이 결여될 경우 프로그램의 효율은 저하될 것이며, 공모의 효과는 반감되다 못해 결과적으로 파탄에 이를 것이다. 사실 세 연극제의 일정 부분은 이미 이러한 혐의가 짙다. 이를 미학적으로, 행정적으로 쇄신할 대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대책은 상황을 감수하고 판단하는 기민한 대응력과 관련이 깊다. 현실의 연극적 흐름을 스스로 체감하되, 미래적 대안을 결부한 분명한 방향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프로그램의 기민한 대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연극공연제의 프로그램은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그러한 유사성 내에서도 기민한 변화와 발 빠른 대처 혹은 분명한 콘셉트는 매너리즘으로부터 축제를 보호하고 대안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힘을 드러낸다. 지역의 연극공연제가 관객을 창출하고 산업성을 제고하며 부대수익과 파생 효과를 높여야 하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중앙 중심의 트렌드에 대응하고 새로운 예술적 트렌드를 주도하며 결과적으로 한국 연극의 새로운 비판과 창의적 미래를 겨냥할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한 축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2. 연극공연제 예산의 효율적 분배와 극대화 효과

지역 연극공연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예산 규모를 사용한다. 2025년 행사 기준으로 거창국제연극제는 14억 원,⁴⁸ 밀양공연예술축제는 9억 원, 통영연극예술축제는 3억 4천만 원이다. 기본적으로 각 지역 연극공연제의 예산 차이는 큰 편이다. 특히 통영연극예술축제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규모에서 예산이 적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연극공연제는 자신만의 특색이 있고, 지역만의 상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의 일방적인 증액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자연스러운 필요에 의한 상승이나 객관적인 평가에 따르는 증편이 요구되며, 또 당연히 그 과정에서 축제의 부실도나 영향력의 감소 혹은 문제적 상황 발생에 따른 감액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각 지역 연극공연제의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스템과 각 자치 단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공유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일정 부분 혹은 전체 지원금을 별도로 충당할 수 있다. 만일 지금의 예산 구조에서 각 지역 연극공연제가 자신들의 예산을 공통 사업에 투여하고 그 협력 업무를 추진한다면, 예산 규모가 작은 지역 연극공연제는 공통 사업에 대한 예산 투여에 반발할 것이다. 그것이 당장 자신의 지역 연극공연제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된다고 해도 심리적인 저항감과 재정적인 부담감이 생기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어 보인다. 실제로 이러한 인식은 운영 주체 인터뷰에서 확인되었다.⁴⁹ 따라서 기존 예산을 활용하는 사업의 구상은 효율적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협의회 자체가 예산 지원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공통 사업에 대한 자체 추진력을 보유해야 한다. 별도의 예산을 보유한 협의회는 각 지역 연극공연 운영 주체들과의 밀도 있는 회의와 토론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 안건을 도출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도 예산을 통해 각 운영 주체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한편, 상대적으로 실익을 전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극을 가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를 통해 공동 사업 참여가 각 지역

48 『제35회 거창국제연극제 평가보고회 자료집』, 거창문화재단, 2025.10.21, 2쪽.

49 한갑수(거창국제연극제 예술감독)와의 인터뷰, 거창국제연극제 예술감독실, 2026.3.13; 제상아(통영연극예술축제위원회 사무국장)와의 인터뷰, 통영 제3의 공간, 2026.4.11; 이경환·정진영(밀양문화관광재단)과의 인터뷰, 밀양문화관광재단, 2026.4.28.

연극공연제에도 유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의 연극공연제의 예산 배분과 집행에 대해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중단기 실익뿐만 아니라 장기 이익도 고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지방 자치에 이후에 지역 축제(여기서는 연극공연제)는 침범할 수 없는 고유 권한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강제적 압력은 간섭을 넘어 차별이라는 인식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협의체가 실질적인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증대와 실익 효과를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당연히 이러한 예산 집행과 관련 활동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현안을 이해하고 운영 주체의 고충을 수렴하여 전체적인 이익이 증대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협의회의 필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협의회의 예산 부담 집행 효과는 지금까지 예산의 과다 지급이나 그 반대 개념으로서 축소 여파를 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연계될 수 있다. 넓은 시야에서 보면, 각 지역 연극공연제에게 분할되어 지불될 수도 있는 지원금을 공동 사업 분야에서 세밀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할 근거를 갖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의회 구성에 제반 어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산(지원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책임 있는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3. 경남 순환 연극 생태 구도 구성

거창국제연극제의 성장, 발달 요인은 수송대가 지닌 빼어난 풍광과 관광객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거창국제연극제는 이러한 풍광과 무대, 관람객과 관객의 교차 진행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유발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발언은 이러한 지금까지의 방식에 새로운 시각, 다시 말해서 변화된 활로를 열어 줄 수 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에서 심재수 의원이 발언한 내용

이다.⁵⁰ 발언 시점은 2019년 9월인데, 이 시점에서 거창군은 상표군 매입으로 인해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와 대립하고 있었다. 이때 한 의원은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지역의 명승지인 위천 수송대국민관광지를 대중 친화적인 사계절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외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제언해 보고자 합니다. ... (중략) ... 전국적으로 손꼽힐 천혜의 명승 경관을 간직한 수송대는 그 자체만으로도 피서철에는 외지인들의 발길을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가 그간의 전통과 브랜드 가치를 통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구태여 피서객들이 몰려드는 피서시즌에 개최하기보다는 비시즌에 개최하여 오롯이 연극제만을 통하여 외지인들의 발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올해 초 수송대국민관광지의 기존자원을 활용하여 낙후된 관광이미지를 탈바꿈하고 황산전통한옥마을과 연계한 친자연적인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명승 거창 수송대 녹색화계획’ 타당성 분석 연구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압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매 시즌마다 변화하며 제각각의 특징을 지닌 수려한 수송대가 여름 한철 반짝이는 피서지가 아닌 국민 누구나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중성 있는 문화콘텐츠를 연중 기획해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제언을 집행부에 드립니다.

발언자(거창군의원) 자신의 주장이 ‘개념 전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 즉 개념 전환을 풀어보면, 여름 피서철에 수송대를 통해 거창국제연극제를 실시하

50 「거창군의회 본회의회의록」, 2019.9.16.

지 말자는 의견이며, 여름에는 어차피 몰려드는 관광객을 수용하고 오히려 비시즌에 국제연극제를 열어 관객으로서 관람객을 불러모으자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매우 흥미롭다. 실제로 심재수 의원의 주장대로 된다면, 수송대는 피서로 한 철, 그리고 국제연극제로 한 철 인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비 시즌에 국제연극제를 열었을 경우, 원하는 인파를 불러모을 수 있느냐는 판단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대에 몰려드는 인파는 사실 관광객과 관객의 반분된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 여름이라는 뜨거운 시즌을 시원한 물놀이와 정서적 관극을 동시에 즐기면서 보내겠다는 욕망이 강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재수 의원의 의견은 현실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송대에 가을 혹은 봄 인파를 모을 수 있는 공연 콘셉트까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대규모 외지인 인파를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 밀양연극촌의 주말극장 사례처럼 현지인과 주변 지역민을 모으는 연극적 공연을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해야 한다. 물론 극장 시설의 가동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상연되는 콘텐츠로서 연극 작품이 준비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이러한 발상과 주장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정기적인 공연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국제연극제를 한 시즌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초단기적 계획을 넘어서서, 보다 안정적으로 연극 인프라를 거창으로 옮겨오겠다는 장기적 플랜이 요구된다. 사실 거창국제연극제만으로는 이러한 시도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때, 지역 연극공연제의 협의체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각 지역 연극공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작품, 추천할 수 있는 작품, 유통할 수 있는 작품을 세 지역

연극제가 공동으로 분담 공연할 수 있다면, 그 부담을 줄어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장점을 취하여, 제작 작품의 로테이션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비록 이러한 상황은 현재 당면한 과제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지역 축제로서 연극공연제가 일정한 한계에 직면하고 그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과 모색이 절실해지면 새로운 변형으로서 그 의미를 재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방안이 등장할 것이며, 그 제안 중에는 과거 혹은 현재의 축제(연극공연제)의 개념을 뒤집고 발상을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5. 결론

이 연구는 경상남도 지역의 대표적 연극공연제인 거창국제연극제, 밀양공연예술축제, 통영연극예술축제를 대상으로 각 축제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세 연극공연제는 경남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지만, 현재 그 성과는 초기의 명성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남 연극공연제의 핵심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예술적 비전과 창작 기반이 약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축제는 초청 공연과 행사 운영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며, 지역 내부에서 새로운 작품을 생산하고 축적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개별 축제의 독자성은 유지되고 있으나, 그 독자성이 상호 협력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 축제는 각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율성을 지니고 있지만, 공동 초청, 인력 교류, 홍보 협력, 자료 공유 등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세 연극공연제가 개별 운영의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나, 심층적 교류와 다층적 협력의 가능성이 개성과 전통이라는 명목 아래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축제의 성과가 지역

문화의 장기적 기반으로 축적되기보다 특정 시기의 행사 효과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공연 시설, 관객 개발, 지역 관광, 창작 인력의 정착 문제와도 연결된다.

그렇다고 세 축제의 문제를 단순히 운영 실패나 예산 부족의 결과로만 볼 수는 없다. 경남 지역은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라는 현실적 조건 속에 놓여 있으며, 공연 예술제 역시 이러한 지역적 조건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경남 연극공연제의 문제는 개별 축제 내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지역 문화 정책의 문제이다. 연극 공연제가 지역의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공연 횟수나 관람객 수의 증가만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창작자와 관객, 공연장과 행정, 축제와 관광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 연구가 세 축제의 내실과 공과, 성과와 폐착, 장단점과 공유점을 함께 살피고자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급격한 통합이나 일방적 재편이 아니다. 오히려 개별 축제의 개성과 명맥을 보존하면서 협력 가능한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세 축제는 각각 국제성, 시설 기반, 민간 창작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경쟁적으로 분리하기보다 상호 보완적 관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공동 초청, 공동 홍보, 전문 인력 교류, 순환 공연, 창작 워크숍, 평가 자료 공유 등은 개별 축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행정과 예산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제는 향후 경남 연극공연제 정책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경남 연극공연제의 활성화는 단일한 처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세 축제는 각각의 역사와 장소성, 운영 주체, 관객 기반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하나의 모델로 수렴시킬 수 없다.

다만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청 중심의 축제 운영을 넘어 창작 기반을 회복하고, 개별 축제 중심의 운영을 넘어 협력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며, 단기적 행사 성과를 넘어 지역문화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경남의 연극공연제는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문화정책의 보조 수단이라기보다, 지역의 문화적 활력과 예술적 자생력을 함께 시험하는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세 축제가 각자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범위에서 협력 구조를 형성할 때, 경남 연극공연제는 과거의 명성을 단순히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공연예술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경남일보』, 2024.11.4.

2. 단행본 및 논문

- 『제32회 거창국제연극제 평가보고회 자료집』, 거창문화재단, 2022~2025.
 「거창군의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2011.10.12.
 「거창군의회 본회의회의록」, 2012.5.29.
 김남석 외, 『연희단거리패의 공연사와 공연미학』, 도요, 2017.
 김복래, 「축제가 문화관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 『유라시아연구』 9(2),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2.
 김종태, 「경상북도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고찰」,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35(1),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24.
 김혜경·정옥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신·구도시 공생 방안 연구」, 『예술교육연구』 23(1), 한국예술교육학회, 2025.
 류정아, 「공연예술축제를 구성하는 '예술성'과 '축제성'의 특성 분석: 아비뇽 페스티벌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22, 한국공연문화학회, 2011.
 볼프강 슈나이더, 「탈식민화. 다양성과 분권화」, 『인문과학연구』 31, 인문과학연구소, 2020.
 서정미, 「에든버러 공연예술 축제의 구조와 기능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41,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19.
 「소극장 연극제 慶南지역 “활발”...釜山은 “냉랭」, 『부산일보』, 1989.11.14.
 이경환·정진영(밀양문화관광재단)과의 인터뷰, 밀양문화관광재단, 2026.4.28.
 이종일 편저, 『거창국제연극제30년사』, 연극과인간, 2019.
 이종일, 『극단입체 40년사: 공연흐름과 무대미학(1983~2022년)』, 연극과인간, 2024.
 이종일과의 서면 인터뷰, 2026.5.12.
 장명재,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정체성 기반 문화예술 활동이 지닌 가치 탐구에 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65,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25.
 장창성(통영연극예술축제위원회 위원장)과의 인터뷰, 벅수골 소극장, 2026.4.11.
 정수희·이병민, 「문화를 통한 창조농촌 활성화 모델 연구」, 『지역과문화』 7(1), 한국지역문화학회, 2020.
 정지은, 「지역예술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관광연구』 31(7), 대한관광경영학회, 2016.
 정지은·이석규, 「글로벌리즘을 향한 지역축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관광연구』 37(10), 한국관광학회, 2013.
 제상아(통영연극예술축제위원회 사무국장)와의 인터뷰, 2026.4.11, 통영 제3의 공간.
 최승연, 「〈아쩌면 해피엔딩〉에서 〈Maybe Happy Ending〉으로」, 『한국극예술연구』 85, 한국극예술학회, 2025.
 통영·밀양·거창에서 여름철 지역 대표공연예술제 개최, 『부산일보』, 2024.7.11.
 한갑수(거창국제연극제 예술감독)와의 인터뷰, 2026.3.13, 거창국제연극제 예술감독실.

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al Limita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of Regional Theater Festivals in Gyeongsangnam-do

Focusing on the G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the Miryang Performing Arts Festival, and the Tongyeong Theatre Arts Festival

Kim, Nam-Seok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strategies for revitalizing three major regional theater festivals in Gyeongsangnam-do: the G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the Miryang Performing Arts Festival, and the Tongyeong Theatre Arts Festival. Although these festivals are important cultural assets, they currently face common challenges, including weakened artistic vision, declining creative capacity, limited inter-festival cooperation, and short-term event-oriented operations.

Each festival nevertheless possesses distinctive strengths. The G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maintains its tradition of international and outdoor theater; the Miryang Performing Arts Festival retains performance infrastructure and the symbolic legacy of its former theater village; and the Tongyeong Theatre Arts Festival preserves the creativity and experimental character of a privately led festival. However, these individual assets have yet to develop into a broader performing arts ecosystem across Gyeongsangnam-do.

This study argues that revitalization should therefore focus not on simply maintaining or integrating the festivals, but on preserving their individual identities while expanding practical cooperation. Such cooperation may include joint invitations, shared promotion, professional personnel exchanges, rotating performances, creative workshops, and shared evaluation data. Through these measures, regional theater festivals can become important platforms for strengthening cultural vitality and artistic self-sustainability, rather than functioning merely as supplementary cultural-policy instruments responding to regional decline.

Keywords Gyeongsangnam-do regional theater festivals, G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Miryang Performing Arts Festival, Tongyeong Theatre Arts Festival, regional cultural policy

이 논문은 2026년 7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6년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6년 8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